

# 제언



하 명 화

(주)포스코 산업의



##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있나요?

### 산업보건

과 나의 인연은 미시간대 보건대학원 산업 의학 석사과정시 지도교수였던 Lawrence Fine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Occupational Surveillance System 개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후에 NIOSH로 옮긴 그분은 산업보건에 치료는 없으며 예방만이 전부라고 가르치셨는데 짧지만 혹독한 훈련과정 중에서 단순한 지식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여 가르치셨다. 그의 모든 시험은 배운 지식을 얼마만큼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보기 보다는 어느 산업장에서라도 만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셨고 그러한 가르침은 산업장에서 일을 해나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나를 받쳐주는 힘이 되고 있다. Lawrence Fine은 첫 면담에서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나는 불쑥 한국에 돌아가 공장의 산업의가 되겠노라고 했고 이는 그가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할만큼 감동을 준 듯 했으며 그 답변을 아직까지는 성실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포항에 일할 터전인 포항제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의 포항행을 동의했던 첫마음과는 달리 정작 산업의로 산업장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어서 도망치려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산업장에 남아있도록 한 힘은 한국에 돌아와 만난 산업보건에 같은 뜻을 두고 오랜경험으로 산지식을 쌓으신 선배님들과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 부터 끊임없이 받은 격려와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산업장에서 만난 작업자들이었다.

올해로 벌써 13년째인 산업장에 와서 첫번째로 했던 일이 의미없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로 어떠한 자료라도 자료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코드를 달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속에 계속 담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산업장 건강관리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금연운동으로, 건전음주로, 금연 후 체중관리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끊임없는 교육과 함께 건강증진운동은 어떻게 해서든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꺾지 않는 일이었다.

세번째는 특히 유해작업환경요인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시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이 구태의연한 검진이라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검사항목 및 작업환경 자료를 연결하여 한가지 결과라도 소홀함이 없이 판단하며 변화를 비교하여 이상소견을 미리 찾아내어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네번째는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여 연말이면 경영진에게 보고할 기회를 얻어 새로이 나갈 방향을 정하고 지지를 얻는 일이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발암물질 작업자의 건강관리와 이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는 금연운동, 유기용제 작업자의 건전음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산업장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 등등

어느 하나라도 하루아침에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수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기를 수차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발돋움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은 할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역할은 끝없는 헌신과 봉사로 채워져 있을 때 근로자의 신뢰를 얻으며 경영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업무는 다르지만 산업보건에 뜻을 같이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산업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한 목표만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하절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열작업장 순회진료를 시작했다. 어제는 포항이 35도씨를 뚫돌아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데 1200도씨를 넘는다는 코크스오븐 앞에서 방열작업복을 입고 작업하고 있는 현장직원들, 에어컨이 틀어져있기는 하지만 8시간을 꼬박 1-2평 남짓한 운전실을 지키고 있는 작업자들을 방문할 때 반가워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틈에 산업장은 결코 내게 떠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본다.

그래 왜 의사이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안하고 산업장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서슴없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있나요?” 라는 반문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